



ハプスブルクの海港都市 : トリエステにおける言語とネーション (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の近代と海港都市 : 文明の入口から出口、そして混合の場へ」報告要旨)

根本, 峻瑠

(Citation)

海港都市研究, 9:185-187

(Issue Date)

2014-03

(Resource Type)

departmental bulletin paper

(Version)

Version of Record

(JaLCD0I)

<https://doi.org/10.24546/81005503>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05503>



ハプスブルクの海港都市

——トリエステにおける言語とネーション——

根本 峻瑠

本発表はハプスブルク君主国最大の海港都市であったトリエステにおける言語とネーションの状況を、ドイツ系・イタリア系・スロベニア系住民三者の相互関係に着目し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

かつて中・東欧に存在したハプスブルク君主国は、多様性の宝庫であった。19世紀末～20世紀初頭にはおよそ5000万人が暮らしたこの国では、主だった言語だけでも10以上が話され、ゲルマン、ラテン、スラブ、ユダヤといった多様な人々が混ざり合い、宗教もまた多岐に渡っていた。このようにヒト、言語、宗教、文化などが複雑に交じり合った同国において、アドリア海沿岸都市トリエステにはまさにその一つの縮図とでもいえるべき複雑かつ多様性に富んだ社会が形成されていた。競合するヴェネツィアの圧力から逃れるため14世紀に自主的にハプスブルク家領に編入されて以来、トリエステはラテン・スラヴ・ゲルマンの三者、そして地中海世界と中欧世界が混在する、他のイタリア都市には見られない性格を持った場となった。それはハプスブルク君主国(=ドイツ的要素)との紐帯あってこそのものであった。そうした状態を指して「コスモポリタン」と呼称することの妥当性がどれほどのものであれ、そこには一定の共存と均衡があったと言ってよいだろう。

しかし同市はいわゆる「未回収のイタリア」の地であったと同時に、優勢を維持せんとする多数派のイタリア系住民とそれに対抗する少数派のスロベニア系住民との対立の場でもあった。もう少しマクロな視点で見れば、ハプスブルク君主国はこの時代事実上の公用語であるドイツ語の話者とそれ以外の言語の話者との相克が顕在化していく時代を迎えていた。本発表ではこうしたトリエステにおけるネーション間の対立の様相を、言語問題という観点から君主国政府による日常語調査を事例に考察する。

更に本発表ではトリエステのドイツ・ギムナジウムを事例に、同市の「対立」だけではなく「共存」の面にも光を当てる。イタリア系/語対スロベニア系/語という構図にドイツ系/語という第三の要素を導入し、ドイツ的要素がトリエステで果たしていた役割を分析する。

以上、本発表ではハプスブルク君主国時代トリエステにおけるイタリア系・スロベニア系・ドイツ系三者の関係を言語を軸に捉え直し、多文化・多言語環境における共存と均衡という観点から、海港都市研究に新たな視角の一端を提示したい。

哈布斯堡王朝的海港都市

——的里雅斯特的语言与民族——

本报告着眼于德语系、意大利语系、斯洛文尼亚语系居民之间的关系，旨在分析哈布斯堡君主国最大的海港都市的里雅斯特的语言与民族的情况。

曾经存在于中欧和东欧的哈布斯堡君主国是一个多样性的宝库。19世纪末至20世纪初，居住着约5000万人口的这个国家仅常用语言就有10种以上。日耳曼、拉丁、斯拉夫、犹太等民族聚集在一起，不同的宗教也随之汇聚。在这样一个“人”、语言、宗教、文化等方面错综复杂的国家里，地处亚得里亚海沿岸的的里雅斯特是一个复杂而充满多样性的城市，可称得上是哈布斯堡君主国的缩影。为了逃离与威尼斯之间的竞争压力，于14世纪自主加入哈布斯堡家族后，的里雅斯特成为了聚集拉丁、斯拉夫、日耳曼的，混合了地中海社会与中欧社会的城市。这种其他的意大利城市所不具有的特征，正是因为的里雅斯特与哈布斯堡君主国（德国因素）之间有着密切的关系才形成的。且不管把这种情形称为“世界主义”是否妥当，可以说那里曾经有过一定程度的共存与平衡。

但是，的里雅斯特除了是“未被回收的意大利”的一部分，同时也是谋求维持自身优势的意大利语系居民（多数派）和与其对抗的斯洛文尼亚语系居民（少数派）相互对立的地方。用稍微宏观一些的视角来看，哈布斯堡君主国里说德语（属于该时代的公共语言）的居民与其他语系的居民之间的对立愈发明显。本报告欲通过语言问题的观点，以君主国政府所实施的日常用语调查为事例，阐明在的里雅斯特的民族间的对立情况。

另外，本报告还以的里雅斯特的德语文理中学（Gymnasium）为事例，除了讨论该市存在的“对立”也关注其“共存”的问题。在“意大利系/语与斯洛文尼亚系/语”的基础上导入第三个要素“德系/语”，分析德国因素在的里雅斯特的作用。

综上所述，本报告以语言为中心，重新审视了哈布斯堡君主国时代居住在的里雅斯特的意大利语系、斯洛文尼亚语系、德语系居民之间的关系，从多文化、多语言环境的共存与平衡的观点出发，希望能为海港都市研究提供一个新的视角。

합스부르크의 해항도시

——트리에스테 (trieste) 의 언어와 네이션 (nation)——

본 발표는 합스부르크군주국 최대의 해항도시인 트리에스테의 언어과 네이션의 상황을 독일계·이탈리아계·슬로베니아계 주민 삼자의 상호관계에 착목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예전의 중동부 유럽에 존재한 합스부르크 군주국은 다양성의 보물창고였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약 5000만명이 살았던 이 국가에는 주요한 언어만 해도 10개 이상이 사용되었고, 게르만, 라틴, 유대인 등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했고, 종교 또한 다양했다. 이와 같이 사람, 언어, 종교, 문화 등이 복잡하게 서로 섞이며 교류하는 이 나라의 아드리아해 연안도시 트리에스테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복잡하며 다양함이 넘치는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경합하는 베네치아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4세기 자주적으로 합스부르크가 영역에 편입된 이후 트리에스테는 라틴·슬라브·게르만의 3자 그리고 지중해 세계와 중부 유럽 세계가 혼재하는, 다른 이탈리아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공간이 되었다. 그것은 합스부르크 군주국 (= 독일적 요소) 과의 유대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코스모폴리탄’ 이라 호칭하는 것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이든 그곳에는 일정한 공존과 균등이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는 소위 ‘미희수의 이탈리아’ 의 땅인 동시에 우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수파의 이탈리아계 주민과 그것에 대항하는 소수파의 슬로베니아계 주민과의 대립의 장이기도 하다. 조금 더 거시적인 시점에서 보면 합스부르크 군주국은 이 시대 사실상의 공용어인 독일어의 화자와 그 이외의 언어의 화자와의 상극이 현저화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트리에스테의 네이션간의 대립의 모습을 언어문제라는 시점에서 군주국 정부에 의한 일상어 조사를 사례로 고찰한다.

나아가 본 발표에서는 트리에스테의 독일 김나지움을 사례로 이 도시의 ‘대립’ 뿐만이 아니라 ‘공존’ 의 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주목하고자 한다.). 이탈리아계 / 이탈리아어 와 슬로베니아계 / 슬로베니아어 라는 구도에 독일계 / 독일어라는 제 3의 요소를 도입하여 독일적 요소가 트리에스테에 끼친 역할을 분석한다.

이상, 본 발표에서는 합스부르크 군주시대 트리에스테의 이탈리아계·슬로베니아계·독일계 삼자의 관계를 언어를 축으로 재고하고, 다문화·다언어 환경에의 공존과 균등이라는 시점에서 해항도시연구에 새로운 시각의 일면을 제시하고자 한다.